

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달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 : 16)

마음톡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말씀톡

그림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삶으로톡

몸이나 말로
'이처럼'을 표현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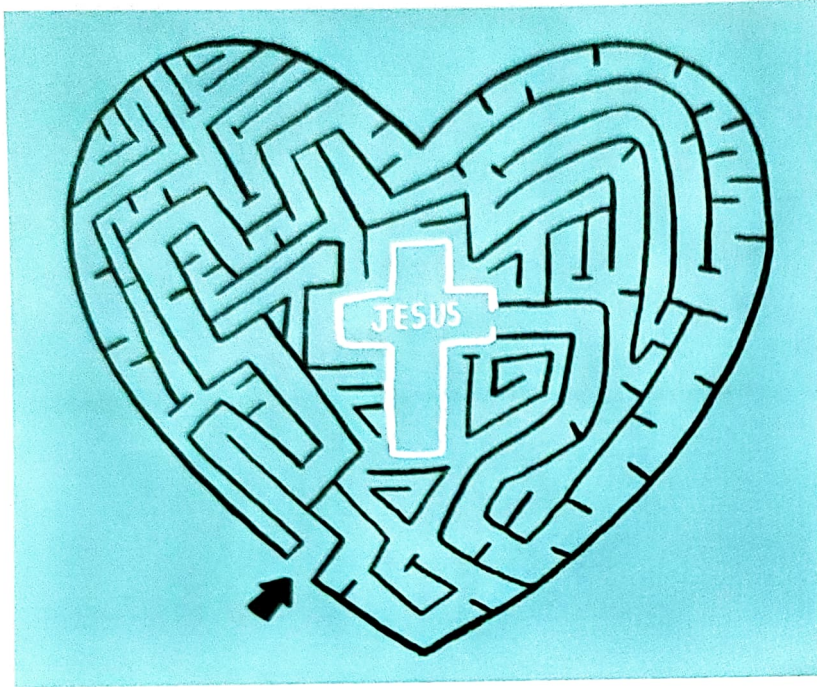
성경이야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도 지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온 땅이 흔들릴 만큼 아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미로를 따라가 보세요.



머리에 쑥!

아가페(Agape)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 크고 따뜻한 사랑이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랑이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예요.

스토르게(Storge) : 나를 낳고 키워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예요. 아빠, 엄마와 함께 있기만 해도 안심이고 행복해져요. 언제나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예요.

필리아(Philia) : 친구와 사이좋게 놀 때 웃음꽃이 넘쳐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도 나눠 줄 수 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정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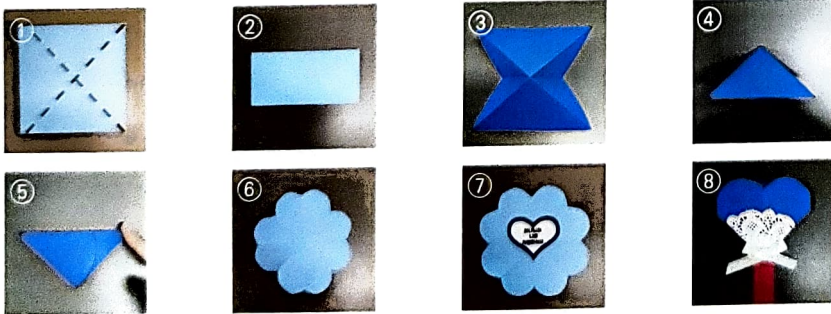
에로스(Eros) :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아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설레는 사랑이예요.

말씀 따라, 똑딱!

예쁜 하트 책갈피를 만들어서 성경에 꽂아 사용해요!

준비물

색종이, 아이스크림 막대, 필기도구, 가위, 풀, 양면테이프, 꾸미기 재료



진행방법

- ①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두 번 접어요.
- ② 종이를 뒤집어 반으로 접어요.
- ③~④ 접은 선을 따라 종이 양옆을 안으로 밀어넣어 삼각형을 만들어요.
- ⑤ 삼각형을 다시 반으로 접어 끝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요.
- ⑥ 자른 종이를 펼치면 꽃모양이 완성돼요.
- ⑦ 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나 문장을 적으세요.
- ⑧ 바깥 면이 보이도록 두 번 접은 후 꾸미고 막대를 붙이면 완성!
- ⑨ 요한복음 3 : 16 말씀을 찾아서 책갈피를 꽂아요.

게임하며 말씀 쑥!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눠요!

준비물

하트스티커

진행방법

- ① 동그랗게 둘러앉아요.
- ② 4박자에 맞추어 손뼉 치기를 연습해요. (양손무릎-양손손뼉-오른쪽 엄지-왼쪽 엄지)
- ③ 첫 번째 4박자에 모두가 "사-랑의-인-사"를 함께 외쳐요.
- ④ 두 번째 4박자에 시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을 지목하고 사랑의 인사를 전해요. ("예-원-사랑-해", "현-우-수고-했어" 등)
- ⑤ 지목받은 사람이 "사-랑의-인-사", "○-○-○-○"로 계속 이어 가요.
- ⑥ 사랑의 인사가 끊어지게 한 사람의 얼굴에 하트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요.

Tip. 게임이 익숙해지면, 사랑의 인사를 하는 부분에 사랑의 동작을 추가해서 진행하면 더 재미있어요.

입술로 아멘!



한 칸 한 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사랑 고백을 들어 봐요. 빈 곳에는 내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

하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넌 사랑해!

나의 사랑을
고백해요!

넌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크고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갇툰

God Toon



마음에 꼭!



딩동~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가 왔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 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 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정예배를 드린 후, 이 편지를 다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



가정예배



우리 가족의
예배공간
만들기

- ① 가족과 함께 모일 공간을 정해요.
- ② 성경이나 십자가, 말씀책자, 가정예배만을 위한 식탁보 등을 활용해, 일상 공간을 거룩한 예배공간으로 만들어요!
- ③ 잔잔한 찬양을 틀어 예배공간을 채워요.

예배순서

- 예배의 부름 다 함께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 기도 ()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
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2절) 다 함께
말씀읽기 요한복음 3:16 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성경 이야기 듣기 다 함께
감동 나누기 다 함께
Q.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Q.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 마음 모아 기도 다 함께
(조)부모 : 하나님, 우리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어린이 : 하나님,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래요.
다함께 :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도 다 함께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죄
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
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
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
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하
나님이라도 아들이 죽는 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땅이 흔들리고 바
위가 깨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
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
을 듬뿍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
랑하는 분이예요.**



부모님을 위한 Q&A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
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 키퍼란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뉴
스나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고 자녀들이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
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마틴 루터도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책임을 위탁 받은 대리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가
정 안에서 예배 인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 부모가 **언제나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의 삶의 주기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
쳐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의 저자 폴트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응답해야 합니다.